東洋學 第58輯(2015年 1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노 태 돈*

▌국문초록▐

고구려는 건국 직후부터 멸망기까지 북아시아의 유목민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양자의 관계를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를 고찰함으로써 고구려의 대외관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료에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607년 돌궐 啓民可汗의 牙帳에서 발생한 隋 煬帝·啓民可汗·고구려 사신의 조우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고구려는 중국 왕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유목민족 사이에서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전 시기부터 장기간 이어진 교섭이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472년 백제가 北魏에 보낸 국서의 내용을 통해, 당시 고구려와 柔然의 제휴가 주변국들에게까지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5~6세기 강대국 北魏와 그를 견제하는 주변 세력들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고구려 조정은 北魏를 압박해 다원적인 국제 정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고 여겨진다. 한편 돌궐 제2제국 毘伽可汗, 闕特勤의 비문에서 언급한 Bökli(=Mökli, 貊匄麗)를 감안하면, 고구려는 6세기 전반에 새롭게 등장해 오랜 우호 세력이었던 柔然을 멸망시킨 돌궐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다. 초반에 마찰을 빚기도 했던 두 세력의 관계는, 중국에서 통일 왕조인 隋가 등장하면서 점차 연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북아시아 유목 종족들과의 교섭 경험은 고구려인들의 인식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와 독자성을 깊이 의식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나아가 현대인들도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통해 중국 사서에 실린 기사의 문제점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구려,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柔然, 突厥, 北魏, 隋

▌목 차▐

Ⅰ. 머리말
Ⅱ. 啓民可汗의 牙帳에서의 遭遇
Ⅲ. 고구려와 유연의 連和
Ⅳ. 고구려와 돌궐의 교섭
Ⅴ. 맺음말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hangawe@snu.ac.kr

Ⅰ. 머리말

고구려는 국초 이래로 북방의 유목민 집단과 이런 저런 교류를 해왔다. 특히 5세기 이후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및 집단들과 밀접한 교섭을 전개하였고,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다. 때로는 고구려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항을 두고 교섭을 하였으며, 때로는 대륙정세의 변동과 연관된 사항을 다루기도 하였다. 고구려 조정은 그 멸망기까지 내륙아시아 주민들과의 교섭에 심혈을 기우렸다.

이런 고구려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의 각양의 교섭 사실은 중국 사서에 별로 언급되지 않았고, 『삼국사기』에도 거의 전해지지 않았으며,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에서도 古突厥碑文에 약간 언급되어 전할 뿐이다. 이런 자료적 한계는 고구려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의 교섭관계에 대한 이해에 근원적인 제약을 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찰은 고구려 대외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 추구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며, 중국왕조의 기록에만 의존할 때 따를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고에서는 고구려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간의 교섭이 지닌 의의를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에 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啓民可汗의 牙帳에서의 遭遇

607년 4월 隋 煬帝는 장성 일대를 순행하였다. 車駕가 榆林에 이르르자 수 양제는 돌연 방향을 바꿔 내몽골 초원에 있는 계민가한의 장막궁전(牙帳)을 향하여 급히 나아갔다. 수 양제가 들이닥치자, 놀란 계민가한은 배례하고, 자신의 장막에 머물고 있던 고구려 사절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수 양제 앞으로 데리고 갔다. 수 양제는 고구려 사절에게 돌아가 고구려왕에게 내년 봄에 涿郡으로 와서 親朝하라는 명을 전하라고 하면서, 만약 듣지 않으면 계민가한을 앞장 세워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공언하였다.[1]

계민가한은 可汗 위의 계승을 둘러싼 돌궐 내부의 분쟁에서 隋의 지원을 받아 반대파를 제압하고 가한 위에 올랐던 자이다.[2] 그런데 계민가한과 그 휘하의 돌궐집단은 비록 현재 수의 세력 하에 복속되어 있지만, 몽골 초원을 주름잡던 돌궐제국의 정통으로 자부하던 자들이다. 능히 새로운 변신과 비약을 꿈꿀 수 있는 이들이다. 그런 계민가한에게 고구려 사신이 찾아와 회합하였다면, 그 목적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즉 고구려는 닥쳐올 수의 침공에 대비해 돌궐과의 연계 내지는 동맹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계민가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수 양제는 그의 움직임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접하자 신속하

1) 『隋書』「突厥傳」.

2) 581년 佗鉢可汗의 사후 돌궐은 沙鉢略可汗의 동돌궐과 達頭可汗의 서돌궐로 분열되었으며, 동돌궐은 다시 여러 가한들 간의 상쟁으로 내분이 지속되었다. 588년 沙鉢略可汗을 이은 都藍可汗(588~599)이 동돌궐을 장악하였지만 반대 세력들이 상존하였다. 隋가 그 중 하나인 啓民可汗(599~609)을 지원하였다. 그러자 달두가한의 서돌궐이 도감가한을 지원하여, 서로 대결과 대립을 벌여나갔다. 수는 啓民可汗을 지원하여 그를 통해 몽골고원의 유목민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게 대응하였다. 御林軍의 무력과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여 계민가한을 제압하고 고구려 사신을 위협하여, 돌궐과 고구려가 결속하는 것을 무산시키었다. 수에 대한 충성과 복속을 재차 확인시키었다. 내몽골 초원에서 당시 동아시아의 주요 군사 세력이었던 수·돌궐·고구려의 대표가 遭遇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와 돌궐의 동맹 모색은 곧 강대한 수 제국의 위세에 의해 압도되어 무산되었다. 이어 있은 수 양제의 고구려 침공에 돌궐의 處羅可汗과 그 형제들이 수군의 일원으로 종군하였다.[3)]

이후에도 고구려는 돌궐 등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 군사적 동맹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당이 북아시아 유목민 집단들을 제압하고, 당 태종이 天可汗이 되어 군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645년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 때, 鐵勒, 突厥 등 북아시아 유목 종족 출신의 여러 장수들이 당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연개소문은 북아시아 유목 종족들 사이에서 동맹세력 확보에 진력하였다. 그 중 하나인 薛延陀에 금은 등의 물자를 보내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설연타는 당군이 요동의 안시성 공방전에 발이 묶여 진격이 저지되자,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출정 전부터 설연타의 동태에 유의하던 당 태종은 이 소식을 접하자 급히 퇴각하여 회군하였다. 이어 다음해 설연타를 공격하여, 이를 철저히 파멸시키었다. 이 때 고구려는 당의 공격으로부터 설연타를 구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자연 북아시아 유목민 사이에서 고구려의 위망은 무너져 내렸다. 물질과 무력에서 유목민 집단을 끌어들일 능력에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이는 곧 북아시아 유목민 집단에서 동맹세력을 구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당 본토에 군대를 파견해 공격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의 침공군에 대항할 유력한 방안인, 당을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동맹세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서쪽으로 나가 동맹세력을 구해보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그런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 교외의 아프라시앞 언덕에 있는 宮殿址의 벽화에 그려진 2명의 고구려사절의 모습이다.[4)] 이 벽화는 7세기 후반 康國(사마르칸트)의 '와르흐만' 왕 치세 때 그려진 것이다. 인근의 Chaganian 국의 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이 벽화의 주된 주제이고, 이에다가 와르흐만 왕의 치세 때 이곳을 방문한 외국 사절들의 모습을 그려놓았던 것을 더하였다.

고구려에서 수만리 떨어진 이곳까지 고구려사절이 찾아가게 된 것은 당을 협격할 수 있는 동맹세력을 구하려는 절박한 목적에서였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는 몽골고원의 유목민과의 오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내륙을 횡단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무위로 끝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고구려와 유목민 국가나 집단과의 교섭이 성과가 없이 단기간에 끝났던 경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어 고구려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 간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교섭에 대해 살펴보자.

---

3) 『隋書』 권84 「突厥傳」; 『舊唐書』 권194 「突厥傳下」.

4) 鳥羽冠 쓴 사절이 차고 있는 환두대도와 그 칼집에 붙은 M자 모양의 장식 등은 일본 東大寺 獻物臺帳에 기록된 '銀粧高麗樣大刀'의 모양과 같다. 의복도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바와 같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들은 고구려인이라 여겨진다. 신라인은 520년에 있은 복식 개혁 이후, 조우관을 착용치 않았다. 이 사절의 정체를 둘러싼 그간의 연구사 정리는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541쪽; 노태돈,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7~32쪽이 참조된다.

Ⅲ. 고구려와 유연의 連和

472년 백제는 종전에 교섭한 바가 없었던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請兵하였다. 고구려를 공격해줄 것을 요청하는 國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고려의 不義와 잘못은 하나 둘이 아니다. 겉으로는 외효(隗囂)처럼 藩屛의 겸손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짐승의 저돌적인 행위를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혹은 남으로 유씨(劉氏)와 통호하고 북으로는 연연(蠕蠕)과 맹약하여, 서로 순치(脣齒)의 관계를 이루면서 왕략(王略)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5]

라고 하였다. 이는 북위를 자극하여 원병을 얻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지만, 당시 고구려가 송 및 유연과 연결하고 있음이 인근 나라에까지 알려졌음을 보여준다.

이어 479년 고구려는 유연과 더불어 地豆于의 분할을 도모하였다. 지두우는 대략 북으로는 陶尒河를 북한계로 하여 室韋와 접하고, 남으로는 시라무렌河 유역에서 거란 奚 등과 잇닿으며 서는 흥안령에서 유연과 접하는 동부 내몽골 지역에 거주하던 유목민이다. 유연과 고구려가 양국 사이에 존재하던 이 집단의 분할을 도모하였던 것은 이 시기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유연과 고구려는 흥안령 동쪽 사면을 경계로 각자의 세력권을 설정하였던 것 같고, 이를 통해 고구려는 요하 이동의 자신의 세력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고구려와 유연 간의 連和가 맺어진 것은 북위의 팽창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양국 간의 교섭이 개시된 것도 이와 연관된다. 유연은 북위가 동진하여 北燕을 공격하자 북연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436년 북위가 북연을 공격하자, 유연은 북위를 공격하여 북연을 측면 지원하였다. 이처럼 북연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연이 북위와 상쟁을 벌이자, 자연 동일한 입장에 있던 고구려와 유연 간의 교섭이 모색되어졌던 것 같고, 늦어도 양국은 430년대 말에는 상호 교섭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6] 이후 양국은 북위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데에 이해가 일치하여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어느 한 나라가 국제정국을 주도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다. 대체로 보아 북아시아의 유연, 북중국의 북위, 남중국의 남조,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고구려 등이 병립하여 세력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중 북위가 가장 강대하고 팽창적이었다. 그러나 유연, 북위, 남조 간에는 力關係의 連動性이 작동하여, 즉 북위가 북으로 유연을 깊숙이 추격하여 공격하면 남조가 그 틈을 타서 북진하여 북위를 공격하니 북위가 중도에 회군하게 되고, 반대로 북위가 남진하여 남조를 공격하면 유연이 북위을 공격하러 남진해와 북위군이 회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그에 따라 유연, 북위, 남조 간에 세력균형

5) 『魏書』「百濟傳」.
6) 노태돈, 앞의 책, 1999, 306~307쪽.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세력균형상태의 유지는 고구려 지배층이 추구하는 바로서, 고구려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팽창적인 북위 세력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였다. 고구려는 북위에 빈번히 사신 파견을 하면서, 일면으로는 남조와도 사신 파견을 통한 교류를 하였다. 유연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5~6세기 고구려 조정은 당시 국제정세를 다원적인 세력균형 상태로 유지하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한다는 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 또한 이러한 고구려 조정의 대외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나아가 고구려는 유연과 남조가 상호 연결하여 군사적 협력을 통해 북위에 대한 협격을 하려는 기도에 대해, 남조와 유연 간의 연락과 연결을 도와주어 이에 협조하였다. 463년 송은 장수왕에 대한 책봉문에서 장수왕의 공을 나열한 뒤 "사막의 나라에 통역하여 짐의 뜻을 잘 펼쳤다(通譯沙表 克宣王猷)"라고 하였다.[7] 이에서 '沙表'는 사막을 의미하며 유연을 지칭한 것이다.[8]

이처럼 고구려와 유연의 교섭은 양국 간의 교류 뿐아니라 당시 국제정세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것은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정책에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백여 년에 걸친 고구려와 유연의 連和를 토대로 한 고구려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의 교섭은 6세기 중반 유연을 대체하여 돌궐이 몽골고원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Ⅳ. 고구려와 돌궐의 교섭

돌궐은 알타이 산맥 서남록의 준가리아 분지에서 유목하며 야철업에도 종사하였던 유연의 예속 집단이었다. 6세기 전반 흥기하여 역사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점차 동으로 세력을 확대해나갔다. 552년 옛 상전국 유연을 懷荒鎭(張家口 북쪽) 북편에서 격파하고 몽골고원의 패자로 등장하였다. 이때 패배한 유연(柔然, Avar)의 일부 무리가 동으로 달아났다. 동로마의 史家인 시모카타(Theophiractta Simocatta)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Tabgač(중국 : 북제)로 도망쳤고, 다시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Tabgač의 공격을 받아 동쪽의 Moukri로 갔다고 하였다.[9] 이 Moukri는 "Tabgač의 인접한 곳에 있다. Moukri인들은 위험에 대처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매일 매일의 신체 단련으로 그들의 투지는 매우 높았다"고 하였다.[10]

---

7) 『宋書』「高句麗傳」.

8) 479년 무렵 유연의 國相이 남조의 齊에 보낸 국서에서 '漠'과 '吳'가 협력하여 북위를 멸할 것을 제의하였다. 유연을 지칭하여 '(沙)漠'이라 한 것은 송의 장수왕에 대한 책봉문의 기사와 같은 표현이다. 유연에서 남조로의 사신 파견은 티베트고원 斜面을 돌아 吐谷渾을 거치는 西路를 취하였다. 남조에서 유연으로의 사신 파견도 서로를 취한 예가 전해진다. 이외에 海路로 고구려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宋書』·『南齊書』芮芮傳이 참조된다.

9) 560년대 이후 동로마와 돌궐이 교섭관계를 가졌고, 왕래한 양국 사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정리하여 동로마인 Meandro가 기록을 남겼다. 아마도 그 기록에 의거하여 Simocatta가 Moukri에 관한 언급을 하였던 것 같다(內藤みどり, 「東ローマと突厥との交涉に關する史料－Menandri Protectori Fragmenta 譯註」, 『遊牧社會史探究』 22, 1963).

10) 岩佐精一郎, 「古突厥碑文のBôkli及びPurumについて」, 『岩佐精一郎遺稿』, 三秀舍, 1936에 Avar 잔당들에 대한 Simocatta의 기록 중 위의 구절에 관한 부분이 프랑스어 번역으로 전재되어 있다. 그것에 의거하였다.

한편 고구려와 돌궐의 첫 접촉에 대해『삼국사기』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551)조에서 돌궐이 신성과 백암성을 공격해와, 조정에서 장군 高紇에게 1만 명을 주어 나아가 이를 격퇴하였다고 전한다. 이 기사는『삼국사기』에서 전하는 몇 안되는 유목민 국가에 관한 기사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돌궐의 발흥 과정을 보면 적어도 이 기사의 년대는 그대로 믿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돌궐이 552년에 회황진 부근에서 유연을 격파하였는데, 그보다 1년 앞서 회황진보다 훨씬 동편에 있는 요동평야에까지 돌궐이 진출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튼 돌궐이 유연을 격파하고 몽골고원을 석권한 뒤 동으로 그 세력을 확대하여 흥안령을 넘어 진출해 옴에 따라, 이 지역에 세력권을 형성해 있던 고구려와의 충돌은 조만간 불가피한 형세였다. 양자는 요하 중상류 지역과 북류 송화강 하류지역 일대에서 맞부딪쳤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던 거란과 속말말갈 및 南室韋 등의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이 그것이다. 양자의 대결에 따라『삼국사기』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조에서 전하는 사건이나, 開皇 2년(582) 營州 지역의 세력가인 高寶寧의 반란을 토벌할 때 내린 수 문제의 조서에서 고보령을 지원하는 돌궐을 격파할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 돌궐과 그 인접국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그들이 원한을 품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예로 "往年에 利稽察[察은 돌궐의 군령관, 典兵官; 設, 殺, 煞, Săd로도 표기]이 고려·말갈에 의해 크게 격파되었다"고[11] 한 사건과 같은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몽골고원의 패자 돌궐의 등장을 고구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알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였다. 몽골고원 오로흔 강변의 호쇼촤이탐에 서 있는, 돌궐 제2제국의 영주 빌게가한(毘伽可汗)과 그 동생 퀼테킨(闕特勤)을 기린 두 개의 돌궐비에는 돌궐 시조 Bumin과 Istami의 장례식에 弔問使節을 보내온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前(동)으로 해뜨는 곳에서 배크리(Bökli)가 왔다"고 하였고, 그리고 두 가한이 죽은 후 돌궐이 쇠퇴해져 Tabgač(중국) 가한에게 복속되어져 그를 따라 "前으로 해뜨는 곳의 배크리 카간(Bökli qagan)에까지 출정하였다"고[12] 하였다. Bökli는 古터키어에서 B음과 M음이 서로 환치될 수 있으므로 Bökli = Mökli가 되며, 이는 貊句麗를 음사한 말로 여겨진다.[13] 내륙아시아 터키계 종족들 사이에서 9세기 대에까지도 고구려는 Moukli, Mőkli로 불리어졌다. 한편 Bumin은 중국 사서에서 전하는 돌궐 시조 吐門可汗을 말하며, 그는 552년에 죽었다. 돌궐비문에 그와 그의 동생 Istami의 장례식을 함께 언급하고 있어, 과연 552년 그의 장례 때에 고구려 사신이 참석하였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아마도 이른 시기에 돌궐과 고구려 간에 교섭이 있었음을 반영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아무튼 유연과 고구려가 脣齒 관계에 있다고 472년 백제국서에서 언급함에서 보듯 상호 긴밀한 교류를 행하였던 만큼, 유연의 멸망 소식을 고구려는 곧바로 접하였을 것이다. 오랜 우호국을 멸하고 등장한 신흥 유목민 국가의 존재는 고구려를 긴장케 하였을 것이

11)『隋書』「突厥傳」.
12) 古突厥碑文 Ⅰ E-4, Ⅱ E-4: 小野川秀美, 1943;「突厥碑文 譯註」,『滿蒙史論叢』4, 1943, 33쪽 및 43쪽.
13) 岩佐精一郎, 앞의 글, 1936.
이에 대해 護雅夫는 비문의 Bökli를 Bök-eli로 轉寫하고, 이를 '貊의 國'으로 풀이하였다(護雅夫,「いわゆるBökliについて」,『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叢－民俗・文化篇』, 1977). 한편 김병호는 Bökli를 고구려라고 특정하지 말고 고구려와 발해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국가와 주민을 통칭한 명칭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김병호,「오르혼 옛 튀르크 어 비문과 한반도인의 옛 이름」,『동북아역사논총』42, 동북아역사재단, 2013).

고, 그것은 당시 고구려 조정이 당면한 내우외환의 상황, 즉 대내적으로 겪고 있던 귀족 간의 분쟁과 대외적으로는 남으로부터 가해진 백제·신라 동맹군의 한강 유역 점령 그리고 북쪽에서 전개되는 北齊의 위험스런 동향 등에 대처해 이를 극복하는 방안 모색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의 동향은 한반도 내의 정세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14]

고구려와 돌궐 간에 벌어진 마찰과 갈등 관계는 隋에 의한 중국 통일이란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거란의 경우를 보면, 돌궐이 거란 지역으로 남진하여 충격을 가하자, 일부 거란 부족이 고구려 세력 하로 이주하였고, 거란 부족과 돌궐 간의 충돌이 이어졌다. 580년대에 들어 일부 거란 부족이 隋의 지배 하로 이탈하였고, 이어 고구려 세력 하에 있던 일부 거란 부족도 隋로 귀부하였다.[15] 즉 돌궐이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돌궐과 고구려 간에 거란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다가, 580년대 이후 수의 영향이 커지자 거란이 수로 기우러짐을 나타내었다. 나아가 수의 세력이 증대되어지자, 이에 위협을 느낀 돌궐과 고구려는 우호적 관계를 맺어나갔다. 600년대에 들어 거란을 사이에 두고 돌궐과 고구려는 대규모 교역을 하기도 했다.[16] 이미 이 당시에는 隋의 고구려침공이 한 차례 있은 뒤이다. 수나라라는 공동의 적대세력에 대항해 고구려와 돌궐 간의 연대와 동맹모색은 그 뒤 계속되었다. 앞에서 살핀 607년의 계민가한의 牙帳에서 벌어진 사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5세기 이후 고구려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의 교섭에 대해 그나마 남아 전하는 기록의 殘片을 통해 槪觀해 보았다. 5세기 이후 고구려는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다원적인 세력균형 상태를 지속하고 그런 가운데서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공간에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하여 유지하려 하였다. 그런 고구려의 대외정책 수행에 고구려와 유연의 連和는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

6세기 중반 이후 돌궐의 등장은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 고구려와의 기존 관계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팽창적인 돌궐과 旣成 대국 고구려 간에 충돌과 마찰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런 면모는 통일 중국 왕조인 수·당제국의 출현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통일 중국 왕조의 팽창에 대응해 돌궐과 고구려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제휴와 동맹을 모색하게 되었다. 수·당 제국과의 장기적인 전쟁에 따라 정세가 악화될수록 고구려는 수·당을 측면에서 견제해줄 수 있는 동맹국을 찾으려는 시도를 되풀이 하였다. 계민가한의 牙帳에서의 회합 시도, 설연타와의 군사동맹, 아프라시앞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절 등은 그러한 고구려의 노력의 일단을 전해준다.

---

14)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 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노태돈, 앞의 책, 1999.
15) 『隋書』 「契丹傳」.
16) 『新唐書』 卷130 「韋雲起傳」.
노태돈, 앞의 책, 1999, 426~428쪽.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의 교섭은 비단 정치군사적인 면 뿐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의식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보다 넓은 세계와 다양한 주민 집단들과의 교섭 경험은 고구려인의 인식의 지평선을 넓혔다. 그것은 대외관계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경도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의 자국의 위치와 독자성을 깊이 인식케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돌궐비문에서 고구려를 'Bökli qagan'이라 하였고, 당을 Tabgač qagan'이라 하였다. 양국 모두를 可汗國으로 파악한 것이다. 可汗 號는 유연에서 사용하였는데, 이를 설명해 '魏言皇帝'라 하였다(『魏書』 蠕蠕傳). 유연은 자국과 북위를 대등한 위상을 지닌 국가로 인식하였음을 전한다. 실제 양국관계가 그러하였다. 돌궐인이 당이나 고구려를 모두 같은 可汗國으로 파악하였던 점이 말해주듯이, 그들에게는 중국왕조 중심의 序階化된 중국적 국제질서 관념이 존재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돌궐인은 고구려를 당과 대등한 可汗國으로서 독립적인 국가로 파악하였음을 말한다. 유연의 경우에서도 고구려를 지칭하여 可汗國이라 하였을 것이다. 이런 북아시아 유목민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고구려인들은 중국적 시각에 일방적으로 기우려 지는 면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현대인도 그런 사실의 확인을 통해, 중국 사서 기사의 문제점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병호, 「오르혼 옛 튀르크 어 비문과 한반도인의 옛 이름」, 『동북아역사논총』 42, 동북아역사재단, 2013.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 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노태돈,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岩佐精一郎, 「古突厥碑文のBökli及びPurumについて」, 『岩佐精一郎遺稿』, 三秀舍, 1936.
小野川秀美, 「突厥碑文 譯註」, 『滿蒙史論叢』 4, 1943.
內藤みどり, 「東ローマと突厥との交涉に關する史料－Menandri Protectori Fragmenta 譯註」, 『遊牧社會史探究』 22, 1963.
護雅夫, 「いわゆるBökliについて」,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叢－民俗・文化篇』, 1977.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0일에 투고되어,
2014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4년 12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

Koguryo's External Relations and North Asian Nomadic Nation

Noh, Taedon*

Koguryo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with North Asia's nomadic nations throughout its history. Unfortunately there are not many materials left that s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However studies on it can lead to a substantial understanding of Koguryo's external relations and reduce the problems that can occur when solely relying on Chinese materials. As seen in the case of year 607, when the Sui Emperor Yang-ti(隋 煬帝)・Ki-min Kagan(啓民可汗)・Koguryo's envoys met at the royal tent(牙帳) of Turk(突厥)'s Ki-min Kagan, Koguryo constantly sought for forces from nomadic nations that could hold China in check. Although this did not turn in to a great success, their long term relations ultimately contributed to making these efforts pay off. The credential that Baekje(百濟) sent to the Northern Wei Dynaty(北魏) in 472 implies that the neighbouring states were aware of the alliance between Koguryo and Jou-Jan Nomadic Empire(柔然). During the 5~6th century when the balance of power was maintained between the powerful the Northern Wei Dynaty and its neighboring states, it seems that Koguryo strived to establish its own independent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 region and to maintain pluralistic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rough repressing the Northern Wei Dynaty. Meanwhile, Bökli(=Mökli, 貊句麗), which appeared in the epitaph of the Second Empire of Turk's Bilge Kagan(毘伽可汗), Kul Tigin(闕特勤) serves as an indicator that Koguryo reacted sensitively to Turk that newly emerged in the early 6th century and conquered the Jou-Jan Nomadic Empire, which maintained positive relations with Koguryo. Although Koguryo and Turk's relations were contentious in the beginning, they gradually turned into a positive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an emergence of unified dynasty Sui(隋) in China. The relations with North Asia's nomadic nations prevented Koguryo people's perception from unilaterally leaning toward China and helped them be conscious of their own nations' location and identity. Moreover, through this fact people in the modern period may reconsider the problems of the articles presented in China's history books.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Koguryo, North Asia's nomadic nations, Jou-Jan Nomadic Empire, Turk Nomadic Empire, Northern Wei Dynaty, Sui Dynasty